

2019년 10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산업정책과 과 장 박성우(044-201-2111), 서기관 박나영(2116) / 제공일 : 10월 17일 (총7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생수 시장은 급성장 음료류 시장은 소폭 증가

- 「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음료류(생수포함) 시장」 보고서 발간 -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(생산규모) 음료류·생수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 중이며, 특히 생수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 중
  - (음료류) 생산액이 2014년 6조 1,306억원에서 2018년 6조 4,779 억원으로 연평균 1.4% 증가
  - (생수)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3년 5,057억 원에서 2017년 7,606억 원으로 연평균 10.7%의 성장률을 나타냄
- ◆ (소매시장현황) 음료류(생수포함) 중 품목별 매출 비중은 '18년 기준 커피음료(24.2%), 탄산음료(22%), 생수(15.2%), 과채음료(12.2%) 順
  - 최근 3년간('16~'18) 품목별 소매매출액 증감률은 에너지음료(20.9% ↑), 이온·비타민음료(13.9% ↑), 생수(13.2% ↑), 커피음료(10.0% ↑)로 나타 났으며, 과채음료(-7.3%)는 감소
    - \* 카페인에 대한 수요로 에너지음료, 커피음료 시장 성장 지속, 건강 트렌드로 이온·비타민음료, 생수 소비 함께 성장/ 당분 등에 의한 건강 우려로 과채음료는 소비 감소 추세
- ◆ (수출·입) 음료류는 인도네시아·베트남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, 생수는 수입규모가 확대되어 내수시장이 성장 중
  - (음료류) '18년 5억 8,263만 달러를 수출하여 '14년 대비 21.1% 성장, 특히 인도네시아 9배, 베트남 5배, 캄보디아 2배 증가
    - \* 한류로 인한 K푸드 관심 증가와 할랄 인증 획득, 현지 맞춤형 전략 등이 주요
  - (생수) 수출액이 27.7% 증가('14~'18)하는 동안 수입은 83.4% 증가하여, 해외 수출보다 국내 생수 시장이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사장 이병호)는 음료류에 대한 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.

※ (음료류 정의) 음료류란 ‘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’으로, 식품 공전\* 기준 다류, 커피, 과일·채소류음료, 탄산음료류, 두유류, 발효음료류, 인삼홍삼음료, 기타음료를 포함한다.

\*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한 기준서

- 생산현황 분석시 위 기준을 따르되, 소매시장 현황(POS DATA) 분석 시에는 소비자들의 통상적 인식에 따라 다류, 커피 중 건조·분말 등 고형은 제외하고 ‘바로 마실 수 있는 액상형 제품’ 형태를 음료류로 정의하여 살펴보았다.

\* 음료류(소매기준) : 액상차, 커피음료, 과일·채소류음료, 탄산음료류, 두유, 이온/비타민음료, 에너지음료

※ (생수 정의) 본 보고서에서는 생수를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의 따른 ‘먹는샘물\*’로 정의하여 살펴보았다.

\*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

□ (음료류 생산) 음료류 생산액은 ‘18년 6조 4,779억원으로 최근 5년간 (‘14~’18) 연평균 1.4% 증가하였으며, 같은기간 생산량은 475만 6,285톤에서 540만 4,609톤으로 연평균 3.2% 증가하였다.

#### <음료류 생산실적>

(단위:톤,백만원)

| 구분  |     | 2014      | 2015      | 2016      | 2017      | 2018      |
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음료류 | 생산량 | 4,756,285 | 4,042,801 | 4,693,142 | 4,561,841 | 5,404,609 |
|     | 생산액 | 6,130,641 | 5,493,546 | 6,080,767 | 5,746,523 | 6,477,864 |

\* 각 연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, 식품의약품안전처

○ (품목별 비중) '18년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커피(30.1%)이며, 이어서 탄산음료류(19%), 기타음료류\*(16.7%), 다류(13.3%)순으로 나타났다.

\* 기타음료류 : 음료베이스와 혼합음료로 분류되며, 이온, 비타민, 에너지음료 등을 포함한 혼합음료가 기타음료류 생산의 77%를 차지

- 최근 5년('14~'18)동안 음료류 생산액 중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% 내외로, 시장을 대표하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,
- 인삼·홍삼음료와 기타음료류가 비중을 늘려가는 가운데, 당분 등에 의한 건강 우려로 과채음료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.

\* 음료류 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(% , '14→'18)

: 인삼·홍삼음료(2.9→4.2), 기타음료류(14.9→16.7), 과채음료류(13.3→11.0)

□ (생수 생산) '17년 생수 생산액은 7,606억원으로,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며 5년간('13~'17) 연평균 10.7%의 증가율을 보였다.

#### <생수 생산실적>

(단위: kl, 백만원)

| 구분 |     | 2013년     | 2014년     | 2015년     | 2016년     | 2017년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생수 | 생산량 | 2,184,964 | 2,492,709 | 2,760,635 | 2,976,141 | 3,180,735 |
|    | 생산액 | 505,716   | 584,499   | 637,691   | 727,775   | 760,609   |

\* 생산량/출하량 : 광업제조업동향조사, 통계청, 2018.11

\* 생산액/출하액 : 연도별 광업제조업조사, 통계청 / 경제총조사, 통계청

□ (소매시장 현황\*) '18년 기준 음료류(생수포함)의 소매점 매출액 (POS DATA)\*\*은 5조 4,459억 원으로 '16년 5조 533억 원보다 7.8% 증가하였다.

\* 글로벌 정보분석 전문기관인 '닐슨코리아'가 백화점·대형마트·편의점 등 국내 주요 유통사의 데이터 및 소규모 식품점 표본조사를 통해 전체 소매규모를 추정한 현황으로, 온라인 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

\*\*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(Point of Sales System)을 통해 수집된 정보. 상품에 바코드 등을 붙여놓고 이를 스캐너로 읽어서 가격을 자동계산하는 동시에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·입력시키는 방식으로 직접된 데이터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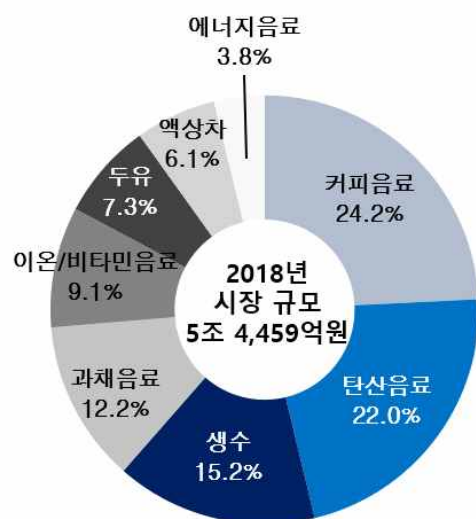
-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커피음료(24.2%)가 1조 3,191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, 이어서 탄산음료(22%), 생수(15.2%), 과채음료(12.2%) 순으로 나타났다.
- 품목별 성장률('16년 대비)은 에너지음료(20.9%), 이온·비타민음료(13.9%), 생수(13.2%), 커피음료(10.0%) 순이었으며, 과채음료(-7.3%)는 유일하게 판매액이 감소하였다.
- 에너지 음료와 커피음료는 카페인에 대한 지속적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였고, 특히 커피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대용량화 및 고품질화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.
- 이온·비타민음료 및 생수는 건강 중시 트렌드가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, 생수의 경우 1인가구 및 어린이 등 수요에 맞춘 소용량 제품(1ℓ, 300ml 등) 출시로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.
- 반면, 과채음료는 당분 등에 의한 건강 우려로 이온·비타민음료 등으로 소비가 대체되며 시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.

<음료류(생수포함) 소매시장 규모>

(단위 :백만원, %)

| 구분           | 2016                | 2017                | 2018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커피음료         | 1,199,093<br>(23.7) | 1,276,128<br>(24.3) | 1,319,081<br>(24.2) |
| 탄산음료         | 1,111,115<br>(22.0) | 1,142,812<br>(21.7) | 1,199,768<br>(22.0) |
| 과채음료         | 719,038<br>(14.2)   | 699,727<br>(13.3)   | 666,759<br>(12.2)   |
| 이온/비타민<br>음료 | 437,170<br>(8.7)    | 473,085<br>(9.0)    | 497,965<br>(9.1)    |
| 두유           | 373,131<br>(7.4)    | 379,074<br>(7.2)    | 398,282<br>(7.3)    |
| 액상차          | 314,442<br>(6.2)    | 332,347<br>(6.3)    | 333,272<br>(6.1)    |
| 에너지음료        | 169,448<br>(3.4)    | 182,022<br>(3.5)    | 204,883<br>(3.8)    |
| 생수           | 729,825<br>(14.4)   | 775,436<br>(14.7)   | 825,899<br>(15.2)   |
| 합계           | 5,053,262           | 5,260,631           | 5,445,909           |

< '18 음료류(생수포함) 비중 >



○ 판매 채널별로는 구매 즉시 음용하는 음료류 특성과 높은 접근성으로 편의점의 매출액 비율이 가장 높고(48.2%), 점유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.

\* 소매채널별 음료류(생수포함) 판매 비중('18)

: 편의점(48.2%), 할인점(13.7%), 독립슈퍼(13.1%), 일반식품점(12.8%), 체인슈퍼(12.1%)

\*\* 음료류(생수포함) 시장 편의점 점유율 : '16) 44.1% → '18) 48.2

- 한편, 커피·액상차 등 대부분의 음료는 편의점 중심으로 판매 중이나, 생수는 대량구매 특성상 할인점 비중도 높았다.

\* 편의점 판매 비중 : 커피(72.4%), 액상차(68.9%), 생수(27.4%), 할인점은 25.4%)

□ (수출입) 음료류 및 생수의 수출액은 '18년도 5억 8,964만 달러로 '14년 대비 **21.2%** 증가하였고, 수입액은 4억 128만 달러로 같은 기간 44.5% 증가하였다.

#### <음료류(생수포함) 수출입 규모>

(단위 : 천 달러)

| 구분   | 수출 규모   |       |         | 수입 규모   |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     | 음료류     | 생수    | 수출액 합계  | 음료류     | 생수     | 수입액 합계  |
| 2014 | 480,996 | 5,497 | 486,493 | 241,511 | 36,279 | 277,790 |
| 2015 | 462,873 | 8,579 | 471,452 | 251,352 | 38,472 | 289,824 |
| 2016 | 519,758 | 6,042 | 525,800 | 250,015 | 63,376 | 313,391 |
| 2017 | 500,279 | 6,848 | 507,127 | 289,193 | 58,602 | 347,795 |
| 2018 | 582,625 | 7,018 | 589,643 | 334,754 | 66,525 | 401,279 |

1) 음료류는 HS코드 2009(과일 채소류 음료), HS코드 2101.12(커피음료), HS코드 2202(탄산음료류 외 기타)의 합계 값임

2) 생수는 HS코드 2201.10(광천수와 탄산수)의 값임

3) 원천 자료의 합계를 천 달러 단위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일의 자릿수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(음료류) 수출액은 '18년 5억 8,263만 달러로 '14년(4억 8,100만 달러) 대비 **21%** 성장하였으며, 특히 인도네시아·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.

- 인도네시아는 '14년 대비 '18년 수출액이 약 9배 증가하여 2,251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동일기간 베트남 5배, 캄보디아는 2배 성장해 각각 3,362만 달러, 7,048만 달러를 수출하였다.
- 인도네시아는 한류로 인한 K푸드 관심 증가와 식품사의 활발 인증 제품이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고, 베트남은 익숙한 재료와 단맛 제품의 수출, 캄보디아는 현지화 전략과 마케팅 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.

#### <주요 국가별 음료류 수출현황>

(단위:톤,천달러)

| 국가    | 수출액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| 2014    | 2015    | 2016    | 2017    | 2018    |
| 중국    | 85,311  | 107,940 | 124,244 | 95,428  | 113,443 |
| 미국    | 69,579  | 72,128  | 80,064  | 79,247  | 84,489  |
| 캄보디아  | 36,099  | 46,127  | 56,503  | 60,355  | 70,478  |
| 일본    | 35,194  | 21,281  | 26,257  | 24,285  | 33,742  |
| 러시아   | 50,215  | 19,187  | 20,892  | 23,237  | 28,277  |
| 베트남   | 6,547   | 9,127   | 15,741  | 25,192  | 33,617  |
| 인도네시아 | 2,386   | 3,034   | 4,566   | 6,811   | 22,511  |
| 기타    | 195,665 | 184,049 | 191,491 | 185,724 | 196,068 |
| 합계    | 480,996 | 462,873 | 519,758 | 500,279 | 582,625 |

\* 수출입무역통계, 관세청

- (생수) '18년 수출액은 702만 달러로 '14년 대비 27.7% 증가한 반면, 수입액은 6,653만 달러로 수출액의 9.5배 수준이며 증가율도 83.4%로 높게 나타났다.
- 최근 5년간('14~'18) 생수 수입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며 '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, 이는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생수 중 수원지가 중국인 제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.

## <주요 국가별 생수 수입 현황>

(단위:톤,천달러)

| 국가   | 수입량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수입액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| 2014    | 2015    | 2016    | 2017    | 2018    | 2014   | 2015   | 2016   | 2017   | 2018   |
| 중국   | 93,614  | 110,537 | 213,280 | 177,962 | 212,245 | 23,229 | 26,342 | 50,759 | 42,280 | 50,084 |
| 프랑스  | 10,492  | 9,442   | 8,895   | 12,214  | 10,120  | 8,259  | 6,484  | 6,437  | 9,631  | 8,534  |
| 이탈리아 | 2,690   | 3,357   | 2,536   | 2,722   | 3,956   | 2,373  | 2,584  | 2,237  | 2,456  | 3,314  |
| 피지   | 568     | 622     | 1,200   | 1,593   | 1,475   | 644    | 784    | 1,269  | 1,461  | 1,462  |
| 독일   | 519     | 649     | 969     | 794     | 995     | 495    | 506    | 734    | 614    | 697    |
| 기타   | 1,699   | 2,051   | 2,604   | 3,169   | 3,112   | 1,279  | 1,772  | 1,940  | 2,160  | 2,434  |
| 합계   | 109,581 | 126,659 | 229,484 | 198,454 | 231,903 | 36,279 | 38,472 | 63,376 | 58,602 | 66,525 |

\* 수출입무역통계, 관세청 / HS코드 2201.10(광천수와 탄산수)의 값임.

- 생수는 수입뿐만 아니라 생산·출하 실적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, 국내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□ 음료류·생수 생산 및 유통·판매 현황, 소비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([www.aTFIS.or.kr](http://www.aTFIS.or.kr))에 게재된 ‘2019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음료류(생수포함) 시장’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### 유의 사항

- 통계 조사 및 공표 시기상 수록 자료에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
-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 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- 책자 내용은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([www.aTFIS.or.kr](http://www.aTFIS.or.kr))에서도 확인 가능